

#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논쟁과 대안 도출 -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다솜(지리교육과 4학년) · 김현중(지리교육과 4학년)

1. 머리말
  - 1) 연구문제
  -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 본론
  - 1)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 2)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
  - 3) 특수학교 설립의 긍정적 사례
  - 4)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대안분석
3. 정리
4. 연구의 한계
5. 기대 방향

## 요약

본 연구는 2017년 발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가칭 서진학교)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마땅히 설립되어야 할 교육 시설인 특수학교를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부정적 측면에서는 지가 하락, 안전의 위협 등 각각의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이것으로부터 사회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좀 더 바람직한 인식을 확립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 개방,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장애 인식 개선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특수학교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용어: 특수학교, 공간, 배제, 대립, 사회적 약자, 지역이기주의, 배려

## 1. 머리말

우리는 누구나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sup>1)</sup>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습자인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장애유형·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일반학교의 일반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 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등에 배치되어 교육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로 주로 중도·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진학하게 된다.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90,780명 중 28.5%인 25,919명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특수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특수학교의 개수가 부족한 이유는 어떤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예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설립을 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건을 두고 진행한 주민토론회에서 설립 반대 측을 설득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이른바 ‘무릎 호소사건’<sup>2)</sup>은 언론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고, 이 사건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외에도 현재 강원 동해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과연 어떠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만약 부정적인 인식이라면 이러한 인식이 어떤 요인으로 생겨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러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미디어 분석을 실시하여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구분하여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 하는 요인을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연구문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의미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식과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 연구문제1.

서울 강서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 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긍정 또는 부정)

### 연구문제2.

만약 부정적인 인식이라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3.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2) 무릎 호소사건은 2017년 9월 5일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 진행되었던 2차 토론회에서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던 사진이 온라인을 통하여 퍼지게 되었고, 이는 반향을 일으켜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찬성 서명이 10만 건을 넘어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이 지난 2018년 9월 4일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짓게 되었다.

##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연구에 있어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문 기사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빅카인즈’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 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이 가능한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1990년부터 50개 매체의 약 4천만 건의 뉴스 콘텐츠들이 빅데이터화 되어 있어 연구를 위해 선정한 단어들의 사용 빈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분석 기간을 최근 특수학교 설립 논쟁들에 있어 가장 큰 이슈였던 서울 강서구 ‘무릎호소 사건’이 일어난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 총 1년으로 두었다. 이는 ‘무릎호소 사건’ 이후의 진행상황과 향후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 찬반 대립 건을 통해 특수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한 기간이다.

신문 기사의 분석은 빅카인즈를 통해 2017.09.01.~2018.09.30. 기간의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주제로 검색한 결과, 총 1,059건이 검색되었다.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의 기사를 제외하고 ‘반대’, ‘찬성’과 같은 의견 대립과 관련한 용어를 포함하여 상세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반대’가 포함된 기사는 총 560건, ‘찬성’이 포함된 기사는 총 50건으로 전반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 2. 결론

분석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서울 강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있었던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총 1년의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삼았다. 분석에 사용된 기사들은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 찬반이 나뉘었으며 비교적 논쟁이 크게 있었던 3개 지역의 사례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분하였다. 그 후 각각의 인식 별로 공통된 요인을 추출하였다.

### 1)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표 1.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식(긍정)

구분	기사내용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조회연 “부지만 있다면 장애인학교, 어디든 지을 것” / &lt;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SBS라디오 2017.09.12.&gt;</li><li>· “특수학교, 내 자식 문제로 여기면 금방 답 나와” / &lt; 김하경 동아일보 2017.09.14.&gt;</li><li>· “그냥 학생이고 학교인걸요” 장애학생의 부모들 / &lt; 신혜경 한국일보 2017.09.16.&gt;</li><li>· 무릎 꿇은 장애인 학생 부모들... 누리꾼들 ‘설립 찬성’ 서명운동 / &lt; 남궁민 머니투데이 2017.09.07.&gt;</li><li>· ‘특수학교 반대’ 강서구민들께... “막연한 거부를 거둬주세요” / &lt; 강구섭 오마이뉴스 2017.10.23.&gt;</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의 강서구 “찬성” 도 많다. / &lt; 손재호 국민일보 2017.09.13.&gt;</li> <li>·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피켓은 찬성측 / &lt; 윤창원 노컷뉴스 2017.09.05.&gt;</li> <li>· 서울시의회,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찬성 기자회견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 &lt; 박정남 아시아일보 2017.09.15.&gt;</li> <li>· 민주당 의원 68명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해야” / &lt; 이승준 한겨레 2017.09.13.&gt;</li> <li>· 인권의 “강서구 장애인학교 반대는 헌법 위배” / &lt; 허재현 한겨레 2017.09.18.&gt;</li> <li>· 이종훈 시사평론가 “특수학교 부근 집값 오히려 올라... 장애인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 &lt; 윤준호 KBS NEWS 2017.09.12.&gt;</li> <li>· 주민 마음 움직인 ‘무릎 영상’ ... 특수학교지지 8만명 서명 / &lt; 김배중 동아일보 2017.09.11.&gt;</li> </ul>
--

위의 표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기사를 정리한 표이다. 기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장애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외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의 표현<(2017.09.12. SBS)을 보아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장애학생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을 한 시간 반이나 걸리는 학교로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2017.09.14. 한겨레)의 표현을 통해 통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학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무릎 꿇은 장애인 학생 부모들의 사연은 접한 한 누리꾼은 “장애인은 교육도 받지 말라는거냐”라고 말했고, 다른 누리꾼은 “헬조선이란 말이 딱이다. 충격적”라고 말하면서 온라인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훌륭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주민들을 볼 수 있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장애인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이들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특수학교 설립을 막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일보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의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수학교 설립은 정당정치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문제라며 생활정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비호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당을 초월해 여야가 합의해 특수학교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의회의 도리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민주당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의원들은 “장애인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그리하여 이번 강서지역 특수학교가 모두의 박수 속에 설립되어,

우리나라가 편견이 없고 배려가 넘치는 아름답고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반대하는 분들과 찬성하는 분들이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순조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하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 제 11조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해야한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KBS 뉴스에서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지역 주민들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인근에 특수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 때문에 특별히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실제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 시내 다른 지역 특수학교 근처를 다녀 봐도 오히려 더 조용하고 경찰 순찰도 더 많이 들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지역 주민들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을 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무릎 꿇은 엄마들의 ‘눈물의 호소’ 보도를 접한 뒤 강서구 주민 사이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동네로 만들자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였다.

## 2)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 2.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식(부정)

구분	기사내용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릎 꿇은 장애인 학생 부모들... 누리꾼들 ‘설립 반대’ 서명운동 / &lt; 남궁민 머니투데이 2017.09.07.&gt;</li> <li>-&gt; 일부 누리꾼들은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학교가 생기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li> <li>· [TF현장]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勢, 주민 대표 맞나요?” / &lt; 김하경 더팩트 2018.03.28.</li> <li>· 서울 강서 특수학교 설립 진통 거듭... 설명회 ‘아수라장’ / &lt; 김재현 뉴스1 2018.03.26.</li> <li>· 무릎 꿇은 장애인 학생 부모들... 누리꾼들 ‘설립 찬성’ 서명운동 / &lt; 남궁민 머니투데이 2017.09.07.</li> <li>· 갈등으로 얼룩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 주민과 상생 가능할까 / &lt; 전소영 투데이신문 2017.09.22.</li> <li>· [新넌비시대]⑤ “무릎 꿇어도 특수학교는 안돼” / &lt; 이상빈 조선비즈 2017.09.12.</li> <li>· “때리면 맞을게요, 제발 특수학교만...” 무릎꿇은 엄마의 호소 / &lt; 이지훈 동아일보 2017.09.09.</li> <li>·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 기로에 선 ‘통합교육’ / &lt; 비마이너 2017.12.12</li> <li>· 강서 특수학교 설명회, 일부 주민 반발에 욕설·몸싸움까지 / &lt; 정영혜 한국인권신문 2018.03.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학교’ 이해는 없고 오해만...</li> <li>/ &lt; 손재호 국민일보 2017.09.13.</li> <li>-&gt;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이들이 든 이유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외감,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다양했다. 유모차를 밀고 있던 한 주부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장애학생의) 부모들 마음은 이해가 된다” 면서도 “우리 아이가 어리다보니 걱정되는 것이 사실” 이라고 토로했다. 옆에 있던 다른 주부는 “(발달장애인 중예) 길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는 사람을 보면 무섭지 않나” 며 “얼마 전 덩치 큰 발달장애 학생 3명이 제 딸이 예쁘다며 다가왔는데 아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고 말했다.</li> <li>· ‘무릎호소’ 6개월... “집어치워” “나가라” 또 싸운 특수학교 주민들</li> <li>/ &lt; 이승호 중앙일보 2018.03.26.</li> <li>· 강서구 특수학교. 무엇이 문제인가?</li> <li>/ &lt; 고희용 페어뉴스 2017.09.29.</li> <li>· 특수학교 반대 이유가 “발달장애아동은 위험해서?”</li> <li>/ &lt; 박인용 프레시안 2017.09.30.</li> </ul>
---

이어서 위의 표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먼저 “4년째 이어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 찬성측·반대측 의견차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투데이신문, 2017.09.22.)라는 표현으로 보아 서울 강서지역은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오랜 기간 주민들이 대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다. 우리 사회에서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보편적 인식이 깔려있는 게 사실” (투데이신문, 2017.09.22.)은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시설에 대해 보편적으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안전위험이 거론되고 있다.” 는 표현은 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향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것은 발달장애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입견과 편견일 뿐, 비장애인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발달장애인의 상동행동<sup>3)</sup> 등은 감각이 예민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과정일 뿐 누구를 해치거나 하는 위험행동이 아니다.<sup>4)</sup>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두 가지 논리를 들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 부지는 허준박물관, 한의사협회 주변 입지라는 점을 들어 국립 한방병원을 짓는 것이 좋다는 논리가 첫 번째, 또 서울에서 15년 동안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특수학교를 왜 하필 이곳에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논리가 두 번째다.” (조선비즈, 2017.09.12.)라는 표현으로 보아 서울 강서구의 옛 공진초 부지에 들어서기로 예정된 특수학교가 국립 한방병원이 지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이 이곳에 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네에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정 등 복지시설이 이미 많다.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8개나 되는데 왜 강서구에 두 개를 세우냐는 것이다. 그런 시설이 또 들어오면 어찌라는 말이냐.” (동아일보, 2017.09.09.)라는 표현은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시설을 교육기관이 아닌 그저 복지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의 특수교

3) 자폐성 장애인들이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

4) 지석연 작업치료사의 설명 인용(투데이신문, 2017.09.22.)

육대상자는 645명이지만 특수학교는 1곳(정원100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중 단 12.7%인 82명만 이 학교에 다닌다. 나머지는 대부분 구로구 등 다른 지역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는 있지만 자리가 없어 입학 못하는 현실이다. “강서구 주민들은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페어뉴스, 2017.09.29.)로 보아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주변의 지가가 하락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서특수학교설립 반대비대위원회는 서울 시내 8개 구에 아직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데, 특수학교가 있는 강서구에 또 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2018.03.26.)라는 표현은 자신이 있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는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아래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요인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요인
1.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지가가 하락할 것
2. 발달장애인이 들어오면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것
3.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기본적으로 먼저 지어져야 할 것

### 3) 특수학교 설립의 긍정적 사례

지금까지 논하였던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는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사례도 존재한다.

아래의 표 3.은 특수학교 설립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수집한 자료이다.

표 3. 특수학교 설립의 긍정적 사례

구분	기사내용
긍정적 사례	· 특수학교와 상생하는 지역도 있다 - 천안 꿈이룸학교 건립 순탄 / < 박수진 한겨레 2017.09.13.>
	· 천안 특수학교 건립, 지역민 적극적 지지로 순항 / < 김한준 중도일보 2017.09.11.
	· 천안시 병천면 탑원2리 주민들 ‘꿈이룸학교’ 일제히 환영 / < 김정동 중도일보 2017.09.12
	· 특수학교 설립 착착... 서울과 너무 달랐던 인천 / < 지홍구 MK뉴스 2017.09.15
	· 서울서 무릎 꿇어도 안 된 특수학교, 대구선 주민 환영 왜 / < 백경서 중앙일보 2018.04.16
	· 전국에서 아이들 몰린 특수학교 “떡 돌려라” 주민들도 환영한 비결은? -서울 효정학교 / < 고동완 오마이뉴스 2017.09.14.
	· ‘기피시설 논란’ 서울 시내 특수학교 3곳 가보니... 우려했던 집값 하락도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도 없었다. - 서울 밀알학교 / < 김현이, 정상훈, 이창환 중앙일보 2017.09.07
	· “장애학생도 내 가족” ... 특수학교 받아준 용인 유림동 주민 / < 김인유 연합뉴스 2017.1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학교 환대한 당진 주민들, ‘무릎 꿇는 학부모’ 는 없었다. / &lt; 최효진 오마이뉴스 2018.06.23</li> <li>· ‘무릎 꿇는 엄마’ 슬픈 자화상, 밀알학교 보면 해법 보인다 / &lt; 최민지 머니투데이 2017.09.13</li> </ul>
--	--

서울 강서구와는 달리 천안 꿈이룸학교는 지역 주민과 큰 마찰 없이 2019년 개교를 목표로 건설 중이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장애 학교가 나쁜 것도 아니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같은 사람인데 이들의 학습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한겨레, 2017.09.13.)의 인터뷰를 보아 이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중시하여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마을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다면 기쁜 일입니다. 예비 학부모와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서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중도일보, 2017.09.12.)의 표현 역시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지역의 “신규학교 건립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도일보, 2017.09.11.)라는 표현은 특수학교 설립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또 다른 사례인 인천 청선학교의 사례이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의 추진시기와 기존 학교의 터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계획까지 비슷한 청선학교는 강서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2017년 3월 개교하게 되었다. 기사 속의 한 시민인터뷰를 살펴보면 “예전 중학교로 운영될 땐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 경비아저씨들이 쫓아내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너무 조용할 정도로 좋다. 특수학교 학생들로 인해 우리가 피해본 것은 없다. 왜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 되고 있는지 의아하다” (MK뉴스, 2017.09.15.)의 표현으로 특수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만족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 청선학교 역시 설립 추진 당시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집값과 지역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며 설립을 반대했지만 당시 찬성 측에서 특수학교는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가야 할 시설이며 우리도 살다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니더라도 먼 친척 중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 (MK뉴스, 2017.09.15.)는 내용을 통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대구 달성 특수학교이다. 2020년 3월에 개교가 예정된 달성군에 들어서는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 교육 중점 학교로 조성된다. 주민 설명회 당시 “특수학교와 함께 달성 교육지원청이 옮겨오고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관심” (경북일보, 2018.03.27.)의 표현은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 설명회 당시 “특수학교가 개교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과 “누구든 몸이 불편해질 수 있고 배려하는 마음 등의 인성교육에 긍정적인 영향” (경북일보, 2018.03.27.)의 내용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 4)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대안 분석

표 4.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대안

	내용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학교 입학 경쟁률 7:11” ...의무 설치 법률 제정해야 / &lt; 천보영 소비라이프 2018.10.16. &gt;</li> <li>· 특수학교 신설 갈등 줄이려면 / &lt; 황대훈 EBS, 2017.10.02. &gt;</li> <li>· 더불어 사는 상생모델 개발... 특수학교의 다양화 / &lt; 박수영 중도일보 2018.03.07</li> <li>· ‘지역사회와 상생’ 모델로... 특수학교 늘린다 / &lt; 황대훈 EBS 2017.09.14</li> <li>· ‘특수학교 논란’ 해결책은... “협의체 구성, 인식개선 교육” / &lt; 최민지 머니투데이 2017.09.12</li> <li>· 갈등으로 얼룩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 주민과 상생 가능할까 / &lt; 전소영 투데이신문 2017.09.22.</li> <li>· [사설] 특수학교는 양보 대상 아닌 장애인의 권리 / &lt; 서울신문 2017.09.13</li> </ul>

위의 기사 내용들을 분석하여 공통된 대안을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었다.

~~

(1) 장애를 바라보는 주민 인식 개선: 우리

(2) 학교개방

(3) 협의체 구성

### 3. 정리 → 연구 목적 간단히, 앞에 분석한 거 요약

본 연구는

## 4. 연구의 한계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연구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었으며, 기사 분석의 기간을 어느 기준을 두고 설정하여야 여러 사례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입장들을 분석할 수 있을지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임의대로 기준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사회적으로 특수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관점 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기사들의 수량이 눈에 띄게 많아 어느 한 쪽에 치우쳐 기사분석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고 이로 인해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5. 기대 방향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찬반 논쟁으로 여러 지역의 사례들이 기사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 바람직한 인식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신문 기사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특수학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과 그 요인들을 파악하고 해석하여 특수학교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분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들을 배려해야 하고 이들 역시 우리와 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 자로서 특수학교는 이들에게 마땅히 교육받아야 할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설립에 있어 논쟁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학교 설립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